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하나같이 할리우드 키드였다.

나이가 들어 극장 출입이 뜸해질 무렵에 이 세대가 발길을 뒤흔리게 한 이가 바로 임권택 감독이다.

90년대 들어 임 감독은 집요하게 '우리 것'에 집착했다.

하게 꾸었다.

분명 그의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時宜 適切)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우파는 물론 좌파까지도 입을 다물었다.

이들 영화 사이에 그가 연출한 '태백산'

백'은 임 감독의 우리 것에 대한 예정의 성격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으면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는 숙명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우파는 물론 좌파까지도 입을 다물었다.

이들 영화 사이에 그가 연출한 '태백산'

이들 영화 사이에 그가 연출한 '태백산'

임권택의 우리 것 길어 올리기

일가?

당시 유행한 '대통령 개그'로는 국제화를 '세계' 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했다.

이들 영화 사이에 그가 연출한 '태백산'

의 산물이다. 동양 종이 있지만 중국 종이와 일본 종이 및 한국 종이는 그 특질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가장 우수한 우리 종이는 우리나라에서 명맥이 끊길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임 감독이 늘 강조하는 역할 아닌 역할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내 원전 안전성 지나친 과신 금물이다

원전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3·11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福島)현 제1 원전 1호기, 3호기에서 잇단 폭발이 일

국내 원전은 현재 21기의 원전이라 가동 중에 있고 7기를 건설 중이어서 '원전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년 연평균 41회로 급증했다. 광주·전남도 14일 신안군 남서쪽 31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한

국내 원전은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로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원전사고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연이은 교육공무원 자살, 교육청 왜 이러나

광주 교육공무원이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시 교육청의 직원 관리실과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A씨가 인사발령 뒤 대인관계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고민 끝에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등 과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자살 동기는 경찰의 수가 결과 등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살한 단행한 인사에서 특징인을 위한 '위인설관'에다 무관심적인 고참 사무원 물갈이 등으로 적법성 논란이 일었던 게 사실이다.

NGO 칼럼

신용진



"청년들이 어디에 숨었지?" 대학 잔디광장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하다 흥이 생기면 막걸리 한잔 기울이던 그 청년들의 여유로움은 어디로 갔는가!

역사적으로 청년세대는 사회변화의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 만난 대기업 경영자들은 "요즘 청년들은 입사에 필요한 스펙은 대단하지만 정작 실무에 필요한 능력은 매우 약해요.

청년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후 청년은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담은 문화의 생산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청년들은 권태로운 일상에 지치고 지겨워져서 사회 밖으로는 외치지 않는다.

우석훈은 저서 '88만원 세대'에서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0대에는 학교와 학원에 매이도록 해놓았고, 윗세대가 원하는 해계모니를 그대로 담은 교육들을 마치고 나면 엄청난 등록금과 좁은 취직문을 통과하기 위해 눈 돌릴 틈도 없는 대학시절이 준비되어 있다.

으로 숨어버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용기를 찾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방향과 좌절도, 저항과 도전도 기성세대가 그랬듯이 그들 삶의 경험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도시 안전총 선성은 1927년 '동광'에 게재한 '용단력과 인내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숲속의 도시 광주'를 공무원

기고

임희진



예년에 비해 눈도 많이 오고 추웠던 날이 많아 봄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는 3월로 들어서 주변 나무들의 꽃눈이 토실토실하고 가지와 줄기는 약동을 준비하는 듯한 색을 보이고 있다.

한때 우리 산들이 벌거벗은 적이 있던 가난으로 떨감을 위해 산에 나무

들 힘만으로 만들 수는 없다. 광주시가 대한민국의 창조 중심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에 걸맞게 도심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봄에 한 그루의 나무를

를 함부로 베어낸 탓이었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정책과 국민들의 협조로 푸른 산을 이루어 냈다.

최근 중요하게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에 숲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숲의 가치가 매우 커지고 있다.

잘못 맞으면 실명 위험 BB탄 총 판매규제 강화해야

며칠 전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던 중 느닷없이 한 손으로 왼쪽 눈을 가린 채 울며 들어왔다.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나무심기 기간으로 설정했다.

오늘은 사과나무 한그루를 심겠다', '나무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다.

화장단과 함께 미래숲을 만들기 위해 이 기간동안 나무와 꽃을 구입하여 학교 자투리땅에 심어보고, 주택가·야외트 등에는 이웃 주민과 가족들끼리 작은 화단을 조성해보자.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그루를 심겠다', '나무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문방구나 완구점에서 BB탄 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인 듯하다.

최근 TV에서 하는 실험을 본 적이 있다. 1미터 전방에 놓인 백열전구를 BB탄으로 박살내는 실험이었다.

일본 열도를 송두리째 뒤집은 쓰나미의 여파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지난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쓰나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도호쿠지역 최대 도시 센다이(仙台)의 참상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다.

센다이는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 센다이시와 자매결연을 한 이후 문화 공연, 경제인단체 상호방문, 현지 김치축제 개최 등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센다이



시민에 의해 훼손된 것이다. 이후 이 길은 '빛고을 대로'로 이름이 바뀌었다.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Gwangju City) and The Kwangju Alb (The Kwangju Album).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